

#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보통의 삶'

조혁진\*

장애인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부터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취업취약계층이다. 취업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노동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 이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양적으로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일의 세계'에서 다른 비장애인과 '동료'라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2년 기준, 한국 사회의 등록 장애인은 2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2%를 차지한다.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1%, 고용률은 36.4%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 64.9%, 고용률 63.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가 저조하다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일'을 통해 사회와 만나는 통로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세계와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장애인이 취업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단위를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 노동자라는 개인 단위와 장애인의 고용 주체인 기업 단위로 나누어, 장애인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보여주는 관행과 실천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장애인 노동자 개인의 차원,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번 노동리뷰 2024년 9월호 특집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원고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 실태」에서는 장애인 노동자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yukjincho@kli.re.kr).

일하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건강 문제를 살펴본다. 건강 관련 문제에서 장애인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취약하다. 비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 사이에 건강 이슈가 서로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두 번째 원고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서는 지방 거주 장애인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구할 수 있는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소개하고 확산 방안을 살펴본다.

세 번째 원고 「장애인 고용과 권리 중심 노동 생태계」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실천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기업들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며,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 정책을 전개하는 이유는 장애인에게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동료 시민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의 세계에 동등한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이다. '동료 시민'으로서의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출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장애인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다면, 각자의 의지와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직업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을 통한 '보통의 삶'의 실현과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삶'을 추구하기 위한 장애인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벌게 해 주는 '소득 보장'이라는 시혜적 의미가 아니라, 일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의 세계에서 '동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더욱 정교하게 장애인 고용·노동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기업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모든 곳에서 함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LI**